

쇼트트랙 한국 정상 무한질주

세계 최고 전력의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3차 대회에서 화려한 '메달 사냥'을 이어 나갔다.

여자 쇼트트랙의 '양대산맥' 정은주(한국체대)와 진선유(단국대)는 2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치러진 대회 이틀째 여자 1,500m 결승에서 각각 2분 20초530과 2분20초814의 기록으로 연이어 결승선을 통과해 금, 은메달을 차지했다.

월드컵 3차대회 1,500m서

男 금·은·동, 女 금·은 차지

정은주는 1,500m 우승으로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미 1, 2차 대회를 합쳐 3개의 금메달을 따낸 '19세 동강내기' 진선유와 1인자 경쟁에 불을 지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이호석(경희대)을 비롯해 송경택(고양시청)과 안현수(한국체대)가 1~3위를 차지, 메달 '싸움'이 성공했다.

이호석은 결승에서 2분20초739를 기록, 송경택(2분20초840)과 안현수(2분21초218)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우승하면서 이번 시즌 개인종목 첫 금메달의 영광을 누렸다.

남자 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는 성시백(연세대)이 42초394로 금메달을 따냈고, 함께 출전한 관운기(신목고·42초631)는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여자 500m 1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대표팀 막내' 박승희(서현중·45초117)는 중국의 단거리 간관 왕멍(45초046)에 0.071초 차로 아쉽게 금메달을 내주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김민규 '금빛 후리기'

중오픈 국제유도 남 81kg 우승

김민규(수원시청)가 2007 중국오픈국제유도대회 남자 81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실업선발팀이 나선 한국은 24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81kg급 결승에서 김민규가 알리 모하 마드니아(이란)를 발다리후리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다고 25일 알려졌다.

1회전과 2회전에서 리마오지안(중국), 톤드 도르즈(몽골)를 연달아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누른 김민규는 준결승에서 하나모토 류지(일본)에 지도승을 거두며 금메달 획득의 최대 고비를 넘었다. 남자 100kg급에 출전한 남광우(KORAIL)는 동메달을 보냈다.



2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벌어진 '2007 하나은행 FA컵대회' 전남드래곤즈와 포항 스틸러스의 결승 1차전에서 전남 곽태휘(가운데 5번)가 결승골을 넣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태휘 결승골... 전남 "GO! 2연패"

전남 드래곤즈가 '철(鐵)의 전쟁'에서 극적인 명승부를 연출하며 포항 스틸러스의 상승세를 꺾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전남은 25일 전남 광양 전용구장에서 열린 2007 하나은행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1-2로 뒤지던 후반 막판 김승현의 동점골과 곽태휘의 역전 결승골로 K-리그 챔피언 포항에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

작년 대회 우승팀 전남은 12월2일 오후 3시 포항 스틸러스에서 펼쳐질 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비겨도 대회 2연패에 성공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992년 이후 15년만에 K-리그를 제패한 포항은 시즌 2관왕을 위해서 2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선제골은 전남의 몫이었다. 왼쪽 날개로 나온 전남 김치우는 전반 21분 시몬이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자 볼 뒤에서 잔뜩 도사렸다. 왼발잡이가 직접 슈팅하리라 예상하기 힘든 위치에서 김치우의 캐년슛이 볼을 뿔었다.

FA컵 결승 1차전 포항 3-2 제압

내달 2차전 비기기만 해도 우승

수비벽을 뚫고 나간 미사일 슈팅은 포항 수문장 정성룡 앞에서 강하게 땅에 튀긴 뒤 더 빨라져 포항의 골망 오른쪽 구석을 세차게 흔들었다.

허정무 감독이 기뻐한 순간도 잠시 2분 만에 포항의 동점골이 터졌다.

키펠레이어는 최요진 대신 나온 올림픽대표 신광훈. 초반부터 예상치 않게 측면을 파고들던 신광훈은 전반 23분 슈팅크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다 전남 수비진의 태클로 페널티킥을 끌어냈고 따바레즈가 침착하게 킥을 꽂아 1-1 균형을 맞췄다.

박원재의 기습과 슈팅크의 돌파로 공세 수위를 높인 포

항은 후반 초반 파리아스호가 자랑하는 세트플레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4분 따바레즈의 코너킥을 슈팅크가 백헤딩으로 넘겨주자 달려들던 수비수 김광석이 오른쪽 눈스톱 슈트로 골문을 쾅꿨다.

1-2로 역전당한 허정무 감독은 임관식, 이규로, 김승현을 연달아 투입하는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대반격에 나선 전남은 후반 36분 스루패스를 받은 시몬이 오른쪽으로 돌파해 들어가다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반대편에서 뛰어든 김승현이 골키퍼 정성룡을 꼼짝 못하게 하는 오른쪽 인사이드 슈트로 2-2 재동점골을 뽑아냈다.

네 골 공방 끝에 무승부로 마감될 것 같던 승부는 전남의 이적생 수비수 곽태휘의 한 방으로 갈랐다.

곽태휘는 후반 42분 아크 뒤 프리킥 기회에서 살짝 흘러준 볼을 오른쪽 아웃사이드 슈트로 강하게 때렸고, 포항 골문 오른쪽 구석에 그대로 꽂았다. 허정무 감독은 두 팔을 번쩍 들었고 그걸로 승부는 끝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국 심판 편파 판정에 항의 한국 배드민턴팀 코트 철수

심과 선심, 라인맨이 모두 중국인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경기 초반부터 심판들의 극심한 장난에 시달렸다. 서비스를 넣을 때 라켓이 허리높이 이상

올라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이 조는 무려 5개의 서비스 폴트와 리시브 폴트 1개를 당했다. 그럼에도 정-이 조는 1세트를 16-21로

내준 뒤 2세트는 21-18로 따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3세트에서 16-16으로 맞선 상황이 되자 중국 심판들이 노골적으로 중국 선수 편들기에 나섰다.

중국의 귀찮음은 서비스를 넣을 때 라켓을 허리 높이를 훨씬 지나 가슴 높이까지 쳐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날려 이내 19-16으로 달아났다.

한국팀은 주심에게 명확한 서비스 폴트라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선수들을 코트에서 불러 들었다.

나주시청 나희정 '은'

아시안컵 말레이시아 사이클

나희정(여·20·나주시청)이 2007아시안컵말레이시아 사이클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나희정은 23~25일까지 말레이시아 팔라렐름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16km포인트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강은미(22·나주시청)는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정인경(21·나주시청)은 3km개인추발에서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6일(월)

▲배구월드컵 남자부 3라운드 <대한민국 : 미국>(13 : 00), <호주 : 불가리아>(15 : 30), <브라질 : 튀니지>(18 : 30·KB-SNSPORTS)

▲한국농구 100주년 기념특집 남녀 OB경기+올스타전(14 : 50·SBS스포츠)

▲여자 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삼성생명>(18 : 50·SBS스포츠)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최상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최상의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최상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효율의 특이 기술력 / 냉매,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남방에 적합 / 퍼복된 문이 견고합니다.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미호 343-11000000
 010-92071-7045, 010-92071-7701

11월 20일 오픈성업중

상무지구 추억의 콘서트

윈드피아 7080

유망한 미래 기술 프로젝트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최상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상무지구 윈드피아 오픈성업 기념 콘서트
 Tel. (062)381-5542, 382-5542